

올해는 시승격 40주년의 해 입니다(1973.7.1)

비전 성남

10 2013년 9월 25일
통권 제219호



성남시 시승격
40주년



스마트폰으로 비전성남 보기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검색 후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발행처 성남시
편집처 공보관
주소 우)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은 월1회(25일경) 발행됩니다.
구독신청하시면 무료로 집까지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구독신청 031-729-2054, 2075~6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보훈·안보 도시, 성남

‘지독한 ^{독도}사랑에 빠지다’

생활 속 매순간 ‘독도 숨결’ 느껴

성남시 곳곳에서 독도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보훈·안보 도시, 성남시는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시스템’을 시 전체 48개 동 주민센터, 4개 출연기관 등 모두 70곳에 확대 설치하고, 9월 6일 오후 4시 수정구 산성동 주민센터에서 개통식을 열었다.

<2면에 계속>



독도 방문 시 경비대원과 함께한 이재명 시장

10월 25일은 독도의날

독도 사진작가 김철환



보훈·안보 도시, 성남
QR코드로 확인하세요

민선5기 3년...

100만 시민의 힘 성남 미래 밝힌다

민선5기 시정부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시정 테마로 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흘려온 땀이 곳곳에서 알찬 열매로 이어지며 100만 시민의 힘이 성남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주민예산참여축제, 시민이 성남시의 예산을 짤다!”

모라토리엄 극복의 성과를 시민에게... 주민제안 721건 지난해의 4배

성남시 예산은 바로 시민의 세금이다. 시민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재정건전화의 효과도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시는 이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안사업을 공모했다.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 8월 5일~9월 5일 한 달간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721건이다. 지난해 207건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제안내용은 도로·교통 분야가 183건으로 제일 많고 보건·복지(121건), 교육·문화(108건), 환경(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도로정비, 공원설치와 정비, 주차장 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하수시설 정비, 체육시설 설치, 버스도착시간 알리기 설치, 자전거도로 개설, 물놀이장 설치 등 생활주변의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 제안됐다.

또한 독거노인 밥차 운영, 가족이 함께하는 그

림그리기 콘테스트, 친환경 휴대용 발전기 보급, 관내 버스 와이파이존 확충, 전주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오토캠핑장 설치 등 각계각층에서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별 검토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제안사업 공모자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제안사업을 발표 및 시상하는 ‘2014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축제’를 10월 15일(화) 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07건의 시민의견을 접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125건을 사업예산에 반영했다.

이처럼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힘이 성남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시는 민선5기 들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 현장행정, 열린 행정을 강화해왔다. 100만 시민이 100만 시장, 시에 애정을 갖고 시를 위해 참여하는 모든 성남시민이 곧 성남시장이다.

예산법무과 예산팀 031-729-2344

굿바이, 모라토리엄

2014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축제



〈우수 제안사업 발표대회〉

10.15(화) 14:40 성남시청 온누리실(1층)

우수 제안사업 발표(시상), 축하공연



1면에서 계속

시 전역 70곳에 ‘독도 실시간 영상 시스템’ 설치



시는 지난해 10월 22일 성남시청 1층 로비와 수정·중원·분당구청 등 청사 4곳에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설치한 데 이어 (주)솔솔 업체의 재능기부(비예산사업)로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시민 발길 닿는 곳마다, 공공장소마다, 독도 실시간 영상 송출시스템을 설치해 서비스하는 기관은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독도 동도 해발 100m에 설치된 KBS의 파노라마 카메라가 독도를 촬영해 무궁화 3호 위성으로 전송받은 영상을 55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으로 보여준다. 독도 전경은 물론 파도와 바람 소리, 새 소리 등 생생한 독도의 모습을 중계한다. 70곳에 설치된 시스템은 매일 오전

6시~오후 7시 운영하고, 실시간 독도영상과 함께 다양한 시정을 알리는 홍보매체로도 활용된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한 독도수호대 회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150여 명이 독도 사랑 조끼를 입고 어린이 북 동아리의 연주에 맞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며 독도 사랑과 수호 의지를 다졌다.

시는 2011년 6월 울릉군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독도사랑 운동을 본격화해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 독도 관련 자료전, 학술세미나, 독도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규탄대회, 새싹지킴이 성남독도수호대 독도 탐방, 독도사랑 어린이글짓기 대회, 독도문화예술제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팀 031-729-2072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신설 확정

시공·운영 협약 체결…
2017년 하반기 완공 목표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신설이 확정돼 공사가 본격화된다. 성남시는 9월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철도(주)와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미금역사 신설의 시공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9년 미금환승역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한 지 4년여 만이다.

협약에 따라 사업비 1,224억 원 가운데 성남시가 70%인 918억 원(환승 편익비용 61억 원 포함), 경기철도(주)가 30%인 306억 원을 분담하고, 시공과 함께 역사 건설 이후 운영과 관리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주)에서 담당한다.

신분당선은 2011년 11월 개통돼 강남~정자역까지 운행한다. 연장사업 1단계로 미금역을 거치는 정자~광교(11.6km) 공사는 201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연장 2단계 강남~용산(8km), 3단계 광교~호매실(11.14km)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이유로 타당성 용역결과 ▲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해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고 ▲ 정자~미금역 1.9km, 미금



9월 5일 ‘신분당선 연장 미금역사 신설의 시공과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왼쪽부터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홍수 경기철도(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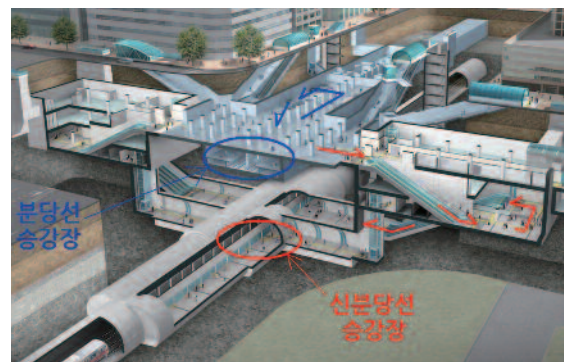
~SB01역 1.8km(정자역~SB01역간 거리 3.76km)로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km에 가까우며 ▲ 추가 정차로 늘어나는 시간은 1분 정도로 운행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 성남대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국토해양부, 민간사업자 등과 60여 회에 걸친 업무협의를 회의로 개최하며 추가 설치를 요청했으나 경기철도(주)에서는 광교 주민 민원을 이유로 협약을 미뤘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1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연장선 공사는 불허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해 나가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자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서 2011년 10월 설치가 결정됐다.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은 기존 분당선 미금역 아래쪽, 지하 40m(지하 4층) 깊이에 승강장 길이 125m, 건축연면적 8,481㎡ 규모로 건설된다.

2017년 하반기 완공되면 수원 광교신도시까지



12분, 서울 강남역까지 18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신분당선(강남~정자) 총사업비 1조5,808억 원 중 판교분담금 4,850억 원과 지방비 109억 원(17%)을 분담했으며, 연장구간인 정자~광교에서도 수원 70억 원(8.5%)보다 많은 74억 원(9.0%)의 분담금을 내면서도 시민 교통편의를 위한 미금정차역 설치가 난관에 빠지자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해 오늘의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교통기획과 교통정보팀 031-729-2472

성남 보호관찰소 근본대책, 성남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근 성남보호관찰소 기습이전 문제로 서현동 인근 학부모님은 물론 성남시민 전체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서현동 입주가 백지화되고 이전 장소 선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됨에 따라 보호관찰소 문제는 이제 성남시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 대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통이며 합의입니다. 성남시와 법무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민·관 대책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대책기구의 논의 의제와 과정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확보 때까지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넷째, 제3의 대안 확보 과정에서 주민동의절차를 필수로 하고, 성남시와 사전협의할 것을 약속받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소통과 합의를 통해 보호관찰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관·정이 합의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 선례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9월 13일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031-729-2312



성남시청 로비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지역경제가 ‘활짝’

일자리가 최고 복지

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일자리가 최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공공근로·취약계층·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공사현장 성남시민 50% 고용운동 등을 펼친 결과 공공·민간부문에서 9만여 명(2012.12.31 기준)이 고용됐다. 올해 말이면 12만4천여 명의 일자리가 예상돼 2014년 목표 10만5천여 일자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롤모델인 시민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도 적극 추진해 올해 7월 기준 8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0개가 목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2011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3년간 성남시와 산하기관 소속 60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안정을 이뤘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정자동 청사부지 기업유치 시 협약체결을 통해 일자리 10% 이상을 성남시민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031-729-2853, 사회적기업팀 031-729-3665



판교테크노밸리

기업하기 좋은 성남, 첨단기술의 심장 되다

기초도시 최초로 지난해 벤처기업 1천 개를 돌파한 성남시는 5년 내 1,500개를 목표로 첨단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전국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에서 ‘전국 최고’ S등급을 획득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특히 IT·BT·CT·NT 및 융합기술 중심의 세계적인 첨단 혁신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분당구 삼평동 일원)는 게임업체 ‘빅 4’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글로벌 연구소, 국내 최첨단기업 등 634개사가 입주 완료를 했고 2015년까지 1천여 업체가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의 심장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시와 산업진흥재단은 기업 애로사항 지원, 정주여건·특화사업 발굴, 정책사업 추진 등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성남시 전략 중점산업으로 IT융합, 콘텐츠, 생명·에너지 등 30개 사업 1,130개사를 중점 육성한다.

이 밖에도 정자동 잔여 청사부지를 매각해 벤처집적시설 유치도 추진, 1,200억 원 자주재원 확보, 3천여 명 고용창출, 연간 200억 원 이상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다.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 기업SOS팀, 첨단산업팀 031-729-2632, 2585, 2653

일본에서도 찾아오는 우수한 성남지역 상권활성화

시가 2012년 4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수정구 수정로(태평역~숯골사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보이며 호평받고 있다. 그동안 각 점포 매출 10% 증가, 폐업 점포 40% 감소 등 상인들은 사업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지난 8월 29일에는 ‘성남시 상인 스마트워크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 총무성과 후생노동

성 공무원 방문단이 성남시를 찾았다. 상권활성화 구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적용사례를 듣고, 100여 개 상가가 밀집한 신흥1동·수진동 일대 상인들의 문화사랑방 ‘스마일 카페’를 방문해 소셜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상권통합관리시스템을 배워갔다.

시는 오는 2017년까지 467억 원을 상권활성화 사업에 지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중앙시장·모란민속5일장·하대원시장 등 전통시

장 시설환경개선과 함께, 2010년 돌고래시장을 시작으로 올 8월까지 11개 시장 804명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도 운영,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전통시장 10개 상인회가 일본산 수산물 판매를 중지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시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유통팀 031-729-2592

‘행복한 생활환경 만들었어요’

» 어린이집·아이사랑놀이터 확충



성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 시민들 호응을 얻고 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0~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23곳을 확충키로 하고, 7곳(판교제2 등)을 건립하고 16곳(중앙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육아지원 ‘아이사랑놀이터’

는 2011년 8월 시청사에 1호가 신설돼 영유아 부모로부터 각광을 받은 시설. 현재 5곳을 신설했고 5곳(분당구청 별관, 양지·삼평·운중동,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프로그램 제공, 장난감 무료 대여, 전문검사 실시 등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 지원을 위해 인건비, 후생복지비 등도 지난해 3월부터 확대해왔다.

앞으로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하고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위례신도시)에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팀 031-729-2932

» 노인복지시설 늘어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조감도

성남시 노인인구(65세 이상)는 9만 5,772명(2013.7.31 현재)으로 성남시 인구의 9.8%를 차지한다. 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시설을 늘려왔다.

지난 2010년 12월 황송노인종합복지관과 태평4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이어 동원경로당(2011.1), 중원구 노인회지회(2012.12)를 신축하고 상대원

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2012.3)과 성남시노인보건센터(2012.5)를 증축해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분당구 백현동 528번지 부지에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기공식을 갖고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루 평균 3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1,407㎡)의 노인여가 시설 건립에 들어갔다.

오는 2014년 수정구 노인회지회, 2015년에는 하안마을 다목적복지회관,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짓고 이매2동 경로당을 증축할 예정이다.

시는 수정·수정중앙·중원·황송·분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5곳에서 평생교육, 취미여가 등 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 어르신은 8,800여 명에 이른다.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031-729-2902

»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본격화



제1공단 부지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개발 사업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9월 공사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을 추진, 지난해 주민설명회에 이어 올해 3월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공포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설립자본금 50억 원으로 1본부 2팀(15명)의 조직을 갖춰 내년 1월 출범한다.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리, 산업단지조성과 각종 시설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개모집을 거쳐 초대 사장에 황무성 전 GS건설 부사장을 11일 임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10월에는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내년 1월 통합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할 계획이다.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면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과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내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모란민속 5일장 이전, 성호시장 개발 등이 속속 진행될 전망이다.

예산법무과 건설재정팀 031-729-2352

» 성남시의료원 건립, 11월 착공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본시가지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의료원 건립과 관련, 9월 10일 ‘의료원 설계 검토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국내 최고 권위자들에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자문단은 분당서울대·분당차·아주대·일산·원진녹색·서울백병원, 인천·서울의료원 등 수도권 8개 병원 실력파들로 구성됐다. 진료·진료지원·병

원관리 등 3개 분야별로 매월 1회 이상 자문위원회를 열어 의료원 건립 방향, 기본설계, 유지관리 등 병원 건축과 운영에 관한 폭넓은 조언을 한다. 설계품질 향상,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수정로 170번길 10 부지에 1,932억 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면적 1만3,438.62㎡, 연면적 8만2,819.59㎡에 병상수

501개,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다. 최근 조달청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울트라건설(주)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11월 착공, ‘치유환경을 선도하는 환자중심 첨단의료원’을 목표로 2017년 초 개원한다.

보건위생과 의료원정책팀 031-729-3111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고질적 악취 잡는다

타당성 용역 실시 후 지하화 추진... 지상에는 체육시설·공원 등 설치 예정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하화가 추진된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는 부지면적 26만9,534㎡(8만1,534평), 일일 시설용량 46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지속적인 생활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성남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실정이다.

그동안 하수처리방식의 고도화, 개방 시설물의 덮개 설치, 악취 포집과 탈취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시행했으나, 지상도출식 시설의 한계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최근 타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사례와 2009년 준공된 판교수질복원센터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휴게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을 볼 때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된다.

지하화 추진 사업비는 4천억 원 규모다. 사업의



성남수질복원센터 제1처리장 지하화 후 예상 전경

효율적 추진과 비용 배분을 위해 제1처리장 24만5천 톤(약 2,1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하화한 후 제2처리장 21만5천 톤(약 1,900억 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화에 소요되는 자원 조달은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2017년부터 착수절차를 진행한다.

2012년 기준 전국 수질복원센터의 경우 25여 곳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설치·운영하는 등 민자유치가 보편화돼 있어 추진 방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정동 수질복원센터가 지하화되면 지상부에는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인근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직영 운영형태를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7월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라 2014년부터 민간 관리대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하화에 따른 종합 타당성 검증용역을 오는 11월 발주할 계획이다.

수질복원과 하수시설팀 031-729-4181

성남시, ‘무상급식은 시민과의 약속’

도예산 삭감 논란 속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비 15억 원 늘려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남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 삭감 논란 속에 성남시는 8월 9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15억 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현재 성남지역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50%씩 지원하며 경기도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총 496억 원의 예산 중 성남시가 약 249억 원을 지원해 ▲유치원 3~5세아 1만1,206명 ▲성남시내 66개 초등학교 1~6학년생 5만1,558명 ▲46개 중학교 1~3학년생 3만5,209명 등 모두 9만7,973명이 무상급식을 한다.

다만, 경기도는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414억 원 중 성남시 교부액은 27억 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식재료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07년 자체 재원으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시작해 2012년에는 경기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보조비율을 당초 30%에서 50%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표〉 성남시 무상급식 관련 예산 현황

구분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계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계	성남시	경기도
예산액(억원)	496	249	247	45	18	27

교육지원과 학교급식팀 031-729-3443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40회 성남시민 체육대회 10월 12일(토)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시 3개 구 48개 동, 100만 시민이 화합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시는 시승격 40주년을 경축, 제40회 성남시민 체육대회를 연다.

과소비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일시 : 10. 12(토) 09:30~18:00(개회식 10:00)
- 장소 : 탄천종합운동장
- 주관 : 성남시체육회
- 후원 : 성남시



◆전체일정

시간	구분	내용
09:30~10:00	식전행사	판교 쌍용 거 줄다리기 시연 - 시민화합 구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표동아리 공연 - 밸리댄스
10:00~12:00	입장식, 개회식, 식후행사	군악대 퍼레이드, 동별 퍼포먼스, 의식행사, 모범시민 표창, 대화사, 축사, 에어로빅, 특공무술 시범, 초청가수 공연
12:30~13:30	축구경기	축구 결승전
13:00~17:00	종목별 경기	7개 종목(육상·축구·줄다리기·협동줄넘기·탁구·게이트볼·배드민턴)
17:00~18:00	폐회식	시상 및 경품추첨

◆경기일정

종 목	경기방법	장 소	경기시간
육상	당일 예선 및 결승	종합운동장 트랙	12:00~12:30(예선), 14:30~17:00(결승)
축구	사전 예선전, 당일 결승전	탄천변 축구장 등	12:30~13:30
탁구	사전 예선, 당일 8강~결승	탄천운동장 탁구장	09:00~
배드민턴		탄천회관 배드민턴장	09:00~
게이트볼		탄천야구장	09:00~
줄다리기	당일 예선 및 결승	종합운동장 트랙	13:00~15:00(예선), 16:00~17:00(4강, 결승)
협동줄넘기			15:30~16:30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031-729-3022

IEF 2013 성남 국제 게임페스티벌 10월 11~13일 성남시청·분당구청

오는 10월 글로벌 게임의 메카 성남에 20여 개국 게임 프로선수들이 몰려 온다. 성남시와 (사)IEF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와 SK텔레콤(주)가 후원해 중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일정

※ 세부일정 일부 변경 가능

날 짜	구 분	시 간	장 소	내 용
10.11 (금)	개막식	18:00~22:00	분당구청 잔디광장	개막선언, 선수 선서 및 축하공연
	B2B 게임전시	10:00~17:00	성남시청 로비	게임 전시 및 체험
	부대 행사 놀이	10:00~18:00	분당구청 잔디광장/성남시청	엑서(EXER)보드·기능성 게임, 민속놀이 등
10.12 (토)	B2B 게임전시	10:00~17:00	성남시청 로비	게임 전시 및 체험
	수출상담회	10:00~17:00	성남시청 한누리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게임 대회 국가대항전	09:00~19:00	분당구청 잔디광장	e-스포츠 종목별 국가 대항전
	부대 행사	아마추어 게임대회	분당구청 잔디광장/성남시청	성남 온라인·스마트 게임대회
		놀이	10:00~18:00	엑서(EXER)보드·기능성 게임, 민속놀이 등
		한중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09:00~18:00	한중 청소년들의 K-pop 따라잡기, 한중 전통공연 등
		공연	19:00~21:00	성남시립교향악단, 국악단, 시민참여공연 등
		IT·Science 페스티벌	10:00~18:00	청소년 IT·Science 페스티벌 (주관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랑방문화 클럽 축제	10:00~22:00	분당구청 잔디광장	전국생활예술동호회 교류의 장 (주관 : 성남문화재단)
10.13 (일)	B2B 게임전시	10:00~17:00	성남시청 로비	게임 전시 및 체험
	게임 대회 국가대항전	09:00~19:00	분당구청 잔디광장	e-스포츠 종목별 국가 대항전
	부대 행사	아마추어 게임대회	분당구청 잔디광장/성남시청	성남 온라인·스마트 게임대회
		놀이	10:00~18:00	엑서(EXER)보드·기능성 게임, 민속놀이 등
		한중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09:00~18:00	한중 청소년들의 K-pop 따라잡기, 한중 전통공연 등
	폐막식	18:00~19:20	분당구청 잔디마당	국제게임대회 결과발표, 대회기 전달, 축하공연 등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 031-729-2653,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31

시승격 40주년 및 성남시민의 날 기념



에드워드 클락_미국

〈인간가족〉 사진展 개최

10월 8~20일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시승격 40주년과 10월 8일 성남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높은 예술적 가치를 선사하는 뜻 깊은 자리, 〈인간가족〉 사진전이 마련된다.

이 전시는 1955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로 1957년 우리나라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등 세계 40여 개국 주요 도시 150여 곳에서 전시돼 900만 명이 관람한 20세기 기념비적인 블록버스터 전시다. 2003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현재 룩셈부르크 크레보성 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뉴욕 현대미술관, 룩셈부르크 크레보성 박물관과 협력해 최고의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 기획자인 에드워드 스타이켄(1879~1973)과 전시에 참여했던 사진가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전시다.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테마로 1940, 50년대 인간애의 회복을 담은 100여 점의 작품과 다채로운 기록물을 선보이며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삶과 인류애의 본질을 전해준다. 가족애의 회복을 소망하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다. 무료 전시로 진행된다.

전시 기간 동안 부대행사로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사)코아스페이스 02-722-4414



도로디어 랭_미국



루셀 리_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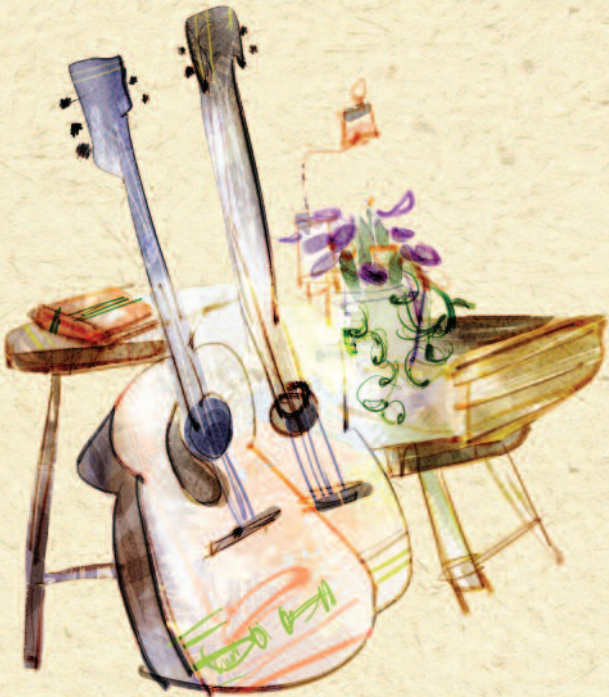


신명 속으로 '풍덩'

가을 축제

느낌 아니까~

성큼 다가온 계절의 변화 속에서 가을의 '신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채비를 한다. 올 가을, 성남지역 곳곳에서 흥과 재미를 돋우는 시민 축제와 행사가 마련된다. 무료 또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 일정을 모아본다.



축제

■ 제27회 성남문화예술제 9.27(금)~9.29(일) 성남시청 특설무대

행사 일시·장소		행사내용
9.27(금) 성남시청 광장 특설무대	17:00~18:00	식전공연(성남시립예술단)
	17:00~18:00	거리 퍼레이드
	18:00	축하공연(인순이, 남진, 김영임(국악), 장미화, 우연이, 경찰대의장대)
9.28(토) 성남시청 광장 특설무대	11:00~13:30	식전공연(오케스트라, 댄스, 연주, 무용 등)
	13:30	연극제 - 마임 & 쇼콜라
	15:00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용축제
	18:00	음악제(오케스트라·협연·성악가 등) "가을밤의 클래식 공연"
	19:30	시민영화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9.29(일) 성남시청 광장 특설무대	11:00~15:00	식전공연
	15:00	시민백일장 시상식 및 시상송
	17:00	국악제(판소리, 민요, 가야금 등 국악 공연)
	19:00	시민가요제(본선 및 장윤정 등 인기가수 공연)
9.26~10.3 성남아트센터 분관 전시실	성남미술협회전	다양한 미술작품 및 도자기 전시
9.27~10.1 성남시의회 1층 로비	사진 전시	다양한 사진작품 전시
9.27~9.29 성남시청 광장	10:00~18:00	시민체험 행사(직거래 장터, 정신건강 상담, 세계품물 전시,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성남예총 031-753-1020, 031-757-1020 www.cas.or.kr

■ 제567돌 한글날 기념 책테마파크 축제 <한글, 날다! 세계로>

10.5(토) 11:00~18:00 율동공원 책테마파크 앞 조각공원 일대

구분	내용
공연	· 성악 앙상블 'the 오페라 바이러스'의 재능나눔 콘서트 · 국악그룹 '야단법석'의 난타와 대북 연주 · 코리아슈퍼재즈밴드 연주
전시	명석 김문태의 동심화전 '한글꽃 피다'
체험행사	· 대한민국 도전 골든벨(분당엄마파라잡기의 역사퀴즈 프로그램) · 훈민정음 탁본 뜨기, 손글씨로 명언·가훈 써주기, 아트북 만들기, 닥종이 공예, 전통 민속연 만들어 날리기, 양초공예, 우드아트, 캐리커처, 책·문구 바자회

※ 우천 시 6일로 연기

책테마파크 031-708-3588



【공연】

행사명	기간	장소	내용
제16회 성남창작무용제	9.27(금) 19:3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태평무, 진도복춤, 사물놀이 판굿, 한국창작무용 '꿈' 성남무용협회 031-753-1020
제1회 하대원 콩쿠르의 밤	9.28(토) 17:00~20:30	중원청소년 수련관 앞 광장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성악·현악·민요·밴드·대중음악 등 경연(유진박, 수와진 등 출연) 행사추진위원회 031-729-6797
제16회 성남시 연극인 합동공연 '마임으로 만나는 서커스'	9.29(일) 15:00	남한산성 놀이마당	성남연극협회 031-753-1020
제5회 성남 판소리 큰잔치	10.3(목) 15:0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신영화·문효삼·윤상호 명창. 선착순 무료 입장 (사)판소리보존회 성남지부 031-713-1147
천원의 행복 릴레이 '행복 나눔'	10.8(화) 19:3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전석 1천 원 성남시립국악단 031-729-4810
	11.12(화) 19:30		
	12.10(화) 19:30		
제16회 전국학생 서예대회	10.9(수) 09:40~15:30	중앙공원 중앙광장	9.23~9.25 접수 성남서예협회 031-753-1020
'판교 쌍용 거(巨)줄다리기' 시연회	10.12(토) 09:20	탄천종합운동장	대보름날,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 성남문화원 031-756-1082
어린이 오페라 <부나부나>	10.18~10.19 11:00, 14:00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전석 2만 원(만 24개월 이상 관람가) 성남시민회관 031-736-8305
향토 민속놀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	10.19(토) 14:00	남한산성 놀이마당	1982년 복원. '이무술'은 현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이름. 성남문화원 031-756-1082
제9회 가을 도심 속의 풍물이야기	10.20(일) 13:30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성남민예총 031-753-2582
제25회 성남시 전국 시조가사 가곡 경창대회	10.29~10.30	성남시민회관 소극장	성남시조협회 031-741-0441
제19회 성남 학생 음악경연대회	11.8~11.9	성남시민회관	성남음악협회 031-753-1020
2013 성남 전국 창작동요제	11.16(토) 17:0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0.7~10.11 접수 성남음악협회 031-753-1020
제28회 성남 전국 국악경연대회	11.17(일) 09:00	성남시민회관 소극장	성남국악협회 031-753-1020
제12회 정금란 무용제	11.22(금) 19:3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성남무용협회 031-753-1020



열린 강좌, 시민들 마음을 물들이다



知好樂 인문학콘서트 시즌 4 성남시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031-729-3083

기간	장소	내용	신청
9.26(목) 19:00	성남시민회관 소극장	‘크로식 예술이 된 괴짜들’ 강의(심보선 사회학자), 2인조 인디밴드 ‘원펀치’ 공연	9~11월 매월 10~25일까지 성남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ll.seongnam.go.kr) 선착순 접수(무료)
10.31(목) 19:00	성남시민회관 소극장	‘경계를 가로지르는 변방의 상상력’(김진혁 PD), 3인조 어쿠스틱 밴드 ‘카멜라이즈’ 공연	
11.28(목) 19:00	판교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집단지성 평범한 다수의 반란’(하승창 시민운동가), 3인조그룹 ‘The 맑음’ 공연	

여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분당여성회 031-702-9622, http://cafe.naver.com/bdwoman

기간	10.29~11.19(화요일 10:00~12:00)
장소	성남시청 3층 모란관
접수	10.1~10.25 선착순 50명
내용	• 10.29(화) 역사 :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11. 5(화) 철학 : 양심이 힐링이다(윤홍식 홍익학당 대표) • 11.12(화) 경제 :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박성준 성공회대 교수,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 11.19(화) 문학 : 시인의 꿈 -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시인, 교수) ※ 성남시청 분수대

제8기 평생교육아카데미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031-707-8377

주중반(1기)	10.7~11.1 (월~금요일 09:00~18:00, 10:00~19:00)
직장인반(2기)	10.1~11.28 (화~목요일 18:30~22:30, 토요일 09:00~18:00)
대상	성남시민으로 평생교육사 국가자격증 과정 5과목 이상 이수자
장소	관내 평생학습기관 강의실
모집	기수별 2주 전~개강 전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실습비	주중반 3만원, 직장인반 5만 원(교재비 별도)

실버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육 중원어린이도서관 정보봉사팀 031-729-4365

기간	장소	대상	접수
10.10~10.31 (목 15:00~16:30)	중원어린이도서관 책이야기윗층방(3층)	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9.25~10.9 선착순 전화 접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10월 프로그램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27(내선 1~3번)

프로그램	기간	장소	대상	접수
힐링아트, 엄마를 부탁해Ⅲ : 연극 치료	10.8~10.24(화-목) 10:00~12:30 총6회	센터 3층	기혼여성	9.23(월)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
가족사랑의날 ‘온가족 조물조물 클레이 아트’	10.16(수) 19:00	센터 시청각실	시 거주 초등학교 자녀를 둔 2인 이상 가족	10.1(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아빠와 숲 속의 보물을 찾아라’	10.12(토) 10:00	맹산생태 학습원	시 거주 초등학교 자녀와 아버지 15가족	9.23(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
부부관계 증진프로그램 ‘통통(通通)부부, 행복 충전!’	10.15(화)~10.24(목) 총5회	센터 시청각실	시 거주 40~60대 부부	9.23(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온라인 모집 (참가비 : 부부당 3만원)

※모든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홈페이지(www.family.or.kr)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참여신청

성남 행복 아카데미 강연일정

제14회



일시 : 2013. 10. 10(목) 10:30~12:00
장소 : 성남시청 온누리실(1층 대강당) ※선착순 입장
강의주제 : 희망의 귀환
초청강사 : **차동엽**(가톨릭 신부, 교수)

제15회



일시 : 2013. 10. 24(목) 10:30~12:00
장소 : 성남시청 온누리실(1층 대강당) ※선착순 입장
강의주제 : 지금은 선물이다
초청강사 : **션**(가수)

문의 :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031-729-2302

클릭! 청소년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 www.snyc.net

‘같은 생각 다른 몸짓’ 제18회 성남시청소년예술제 I 10월 25~26일(18:00~20:00) 무술 & 퍼포먼스를 주제로 색다른 공연이 진행되며, 청소년을 위한 볼금댄스파티가 희망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또 창작 연극, 뮤지컬 공연,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공연 등 청소년연극제가 10월 30일~11월 2일 선보인다. 관내 중·고등학생 단체관람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031-740-5264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학교 I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를 주제로 청소년 착한 경제열전, 청소년 마을카페 만들기, 가족과 떠난 공정여행 등 3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참가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로 알 수 있다.

문의 : 031-740-5241

중원청소년수련관 www.jwyyouth.or.kr

책과 함께하는 추억 한마당 I 10월 12일(토) 한지로 만드는 우리 가족 얼굴 꾸미기, 솟대만들기, 빅북전시, 원화전시 등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독후 감상화 그리기대회도 열린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9월 28일(토)부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31-750-4639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www.uth.or.kr

제4회 성남시청소년 IT Science Festival I 10월 12일(토 10:00~16:30) 성남시청에서 ‘과학!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IT! 세계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문’을 슬로건으로 해 펼쳐진다. 관내 초·중·고 과학 동아리와 전문업체의 체험부스 운영, IT·과학분야 저명인사 초청강연, 청소년 문화감성 향상을 위한 문화공연 등이 준비되며, 성남국제게임페스티벌·분당소방서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게임 관련 전문체험부스, 119이동안전체험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의 : 070-4490-8324

가족애(愛) 캠프 ‘너의 목소리가 들려~’ I 10월 19~20일 1박2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휘닉스파크에서 청소년(9~24세)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플라잉 집 어드벤처, 웰니스 숲 트래킹, 마스터 셰프 in 가족캠프(가족요리 경연대회), 행복한 가족이 될래(편지쓰기) 등 가족캠프가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4만 원이며 9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문의 : 070-4490-8323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www.tenten21.or.kr

내 꿈을 디자인한다 I 10월 12일(토) 대학생 멘토와 함께 대학 탐방과 진로상담 등 청소년의 하루 동안 대학생 되어보기 프로그램이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실시된다. 9월 21일(토)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하며 참가비는 2만 원이다.

문의 : 070-7496-2013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www.sn1388.or.kr

또래상담자 모나캠프 I 관내 중·고등학생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10월 18~19일 중원청소년수련관 또래캠프장에서 리더십 프로그램, 또래상담자 심화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내용으로 연다.

문의 : 070-4910-30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I 학업중단·상급학교 미진학·취약계층 청소년 등 만 13~24세를 대상으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자퇴 징후가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중단 숙려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성남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학업·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두드림·해밀교실도 운영한다. 전화나 이메일(sn1388@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70-4910-3018/ 070-4910-3021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단대동 논골마을 어두운 골목길이 야생화가 반기는 꿈길로~



‘논골에 가면 우리나라 야생화를 볼 수 있다.’

논골마을센터와 논골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소통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지난 8월 ‘소곤소곤 논골 꿈길 벽화 만들기’와 ‘우리 동네 하룻밤 캠프’를 진행했다.

물망초 벽화를 시작으로 논골 일방통행로(단대동 논골 47~61번지) 상원여중 300m 담벼락에 12종의 야생화 그림 작업을 마쳤으며 오는 10월에 10종의 야생화를 더 그릴 예정이다.

윤수진(43·여) 논골마을센터장은 “어두웠던 골목길이 꿈길로 변하고 살아있는 듯한 벽화 앞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주민들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며 “무더위와 싸우며 땀 흘린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와 큰 박수를 보내며 ‘한 명의 아이가 자라는 데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 논골 마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이 하나 되는 문화의 장 ‘우리 동네 하룻밤 캠프’는 각 텐트별 음식 콘테스트,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8월 31일~9월 1일 1박2일간 상원여중 운동장에서 26가족이 함께했다. 엄마가 만든 고추장 불고기가 짝이라며 맛있게 먹는 박승민(단대초 3) 군은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니까 정말 재미있다고 한다.

할머니표 카레라이스를 요리한 박정순(67·여) 씨는 산이 있어 공기도 좋고, 온가족 3대가 함께한 기쁜 추억이 생겼다고 감사해한다. ‘모락모락’ 캠프파이어에서는 서로 손잡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아이들이 엉덩이를 실룩대는 등 논골마을에서 하룻밤 캠프는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아름다운 야생화의 향연 속에 행복의 향기가 솔솔 묻어나는 희망의 논골마을이 되길 기대한다.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상대원 원마을공동체 마을의 애물단지가 다이어트 계단으로~



가파른 언덕길, 그리고 계단, 또다시 언덕길... 한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오래된 가파름. 마을이 형성된 때부터 우리네 삶과 함께 해온 수많은 계단 중 또 한 계단이 애물단지에서 마을의 보물단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대원 1·2동을 사이에 두고 하늘로 솟을 듯 치켜올라 서 있는 낡고 허름한 계단이 청소년들의 기막힌 발상으로 ‘다이어트 계단’이라는 이름의 재미있는 공간으로 변했다. ‘올라가기 너무나 힘들다며, 다이어트 계단으로 꾸미면 좋겠다’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원마을 공동체’ 어른들이 받아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투자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계단 꾸미기 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넣어 ‘청소년들도 이 마을의 책임 있는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며 다문화 여성들이 그린 그림 액자가 벽에 걸리고 마을 주민이 기증한 화초가 계단을 장식하는 등 사업비 한 톨 안 들이고 꾸며진 계단이라서 그 의미가 깊다.

한 계단, 두 계단... 헉헉, 큰 숨을 몰아쉬어가며

오르던 낡은 계단이 이제는 걷고 싶은 오름으로 바뀌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몇 kcal가 소모되는지 계산해 보고, 아기자기 새겨진 문구를 읽다 보면 힘든 발걸음은 어느새 즐거움이 된다.

마을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인 ‘원마을 공동체’는, 누구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일곱 개 기관(함께하는주부모임, 중원청소년수련관, 상대원 1·2·3동 복지회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상대원시장 상인회)의 뜻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했다. “일곱 개 기관이 뭉쳤으니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은 말한다. 그의 말처럼 원마을공동체는 ‘상대원골 야외 영화극장’, ‘소통하는 문화체험 활동’, ‘지역 어르신 식사대접’, ‘어르신 유람선 관광’ 등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빈 공터를 활용해 주민들이 각종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야간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펼쳤다. 주민들은 모처럼 가족들끼리 한 자리에 둘러앉아 영화를 감상하고 문화체험을 즐기며 소통하고 행복해했다.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양희정 함주부 회장은 “힘은 들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행복해하는 주민들의 표정만 생각하며 일한다”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남의 자랑이자 모범케이스가 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이런 곳!



국가 치매관리의 컨트롤타워, 국립중앙치매센터
치매,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에게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손꼽힐 만큼 개인의 황폐화와 가족의 고통은 심하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58만 명이고 2015년에는 100만 명, 2040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5가구 중 1가구는 치매환자가 있는 셈이 된다. 중증도 이상 치매환자의 가족은 매일 6~9시간 동안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매달려 있어야 하고,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위한 조호(調護) 비용은 연간 1,968만 원에 이른다.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치매관리

치매의 심각성을 알게 된 우리 정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국립중앙치매센터가 설립됐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치매를 관리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국립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치매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곳으로 인프라 구축, 조호, 연구, 교육, 네트워크 등 5개 부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 치매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에서 광역으로, 또 253개 보건소로 전달되는 체계다.

애플리케이션 ‘집으로’와 ‘치매 체크’



지난해는 7천 건이 넘는 치매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착안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집으로’는 실종자 검색은 물론, 실종자를 등록할 수도 있다.

이 실종자 정보는 경찰청 실종자 정보와 연계되고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와도 연동된다.

‘치매 체크’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치매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다. 치매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의 공포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기웅(49·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센터장의 말처럼 11월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24시 통합 상담콜 서비스가 오픈 예정이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국립중앙치매센터를 통해 치매 관련 정보는 물론,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도 나눠 보자.

• 치매정보365 : www.edementia.or.kr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2번지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2 A동 308호

국립중앙치매센터 대표전화 : 1666-0921, 홈페이지 www.nid.or.kr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성남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9월 11~13일 3일간 운영



성남시의회(의장 최윤길)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룬 제198회 임시회를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임시회 첫날인 11일 오전 개회식

에서 최윤길 의장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사를 반영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열정을 되새기며,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회, 그리고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계속해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 회기결정의 건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 제4회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 등을 각각 처리했다.

12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반의안(16건) 심의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운영했다.

이어, 13일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했으며, 계속해서 오후 4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 및 의결 등을 처리 후 폐회했다.



제198회 임시회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성남시의회 의장단 2013 을지연습장 방문 격려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8월 20일 오후 ‘2013 을지연습 훈련’이 진행 중인 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에 여념이 없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장단은 진광용 종합상황실장으로부터 전시 대응태세와 을지연습 주요상황 조치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각 연습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공무원과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을지연습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만큼, 훈련 참가자들이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능력을 배양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한 올해 을지연습에는 성남시청 및 군부대 등 25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국가안보 및 재난사고 등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연습했다.



독일 KVJO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 성남시의회 방문



독일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KVJO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 일행 60여 명이 8월 17일 오전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및 의회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KVJO 윈드 오케스트라(독일) 방문은 ‘2013년 성남 국제 청소년 윈드 페스티벌’에 참석차 초청 내한했으며, 이날 단원들은 본회의장과 방청석 등을 둘러본 후 의장석 주변에 모여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견학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우리 성남시의회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조금이나마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의회 청사를 상시 개방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의회사무국 담당직원을 통해 일정을 전화(☎031-729-2523~5)로 확인한 후 팩스(☎031-757-8047)나 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교지역 주민 편의시설 ‘알파돔시티 사업’ 순항

수도권 최대 규모 백화점,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서



판교 알파돔시티 조감도

판교지역 주민 편의시설 ‘판교 알파돔시티’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기공식에 이어 올해 초 현대백화점과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공사를 착공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은 대지면적 13만7,500㎡, 연면적 120만4,792㎡ 규모로 사업비 5조여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대한행정공제회 등 1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단일 백화점으로는 수도권 최대 규모(대지면적 2만 2,905㎡, 연면적 23만4,500㎡)의 현대백화점(복합

쇼핑몰)이 올 3월 착공돼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주상복합용지에는 아파트 10개 동 931세대(3,300여 명 입주)와 판매·업무시설 4개동이 올 4월 착공돼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복합개발시행자 ㈜알파돔시티는 현대백화점과 주상복합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할인마트·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호텔시설 등을 단계별로 착공해 2018년 12월 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평균 21만여 명의 인구가 방문·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 남부지역 중심지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교역과 연계한 첨단 도심복합센터로서 판교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LH공사가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백현동 539번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주차면수 730대 규모로 건립하는 판교역 환승주차빌딩이 내년 5월경 완공되면 성남시에 기부 채납돼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

사업추진과 택지계획팀 031-729-4503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전국 ‘최우수’

시행 평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뛰어나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가정폭력이나 유기, 방임 등으로 긴급대상이 발생할 경우 지원 네트워크로 365일 원스톱으로 보호할 수 있는 SOS 위기지원 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구축했다.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임금체계 개선 등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처우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031-729-2833

이재명 시장, 주부 마음으로 생협 일일점원 나서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조합원인 유통구조 지원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1일 ‘아이쿱(iCOOP) 성남분당생협’(정자2동 소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일일점원으로 나섰다.

이날 행사는 친환경 먹을거리 유통 과정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iCOOP 성남분당생협 매장은 안전한 친생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받으려는 소비자들이 직접 출자해 2006년 설립됐다. 성남지역 내 4,986명(수

정 85명, 중원 180명, 분당 4,721명)이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곳은 친환경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조합원이 출하하는 농산물·축산물 등 물품을, 역시 조합원인 소비자가 미리 공급량·가격을 결정하는 약정을 맺어 직접 제공받는다.

일반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조합원은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생산자는 또 조직적인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는 구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iCOOP 성남분당생협의 유통구조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특히 생협운동에 조합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또 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보관실 공보팀 031-729-2081

시정알림

재산세 납부하세요

2013.6.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편리하게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전화(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3, 729-7480~3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물가안정

시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시 관리 공공요금 동결 유지, 물가모니터 활성화로 물가감시 체계 마련, 명절·연말연시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점검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정해 인센티브 지원, 공직자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장바구니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적정한 가격이 알고 싶다면 성남시 소비자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mulga.seongnam.go.kr>)를 보면 된다. 우리시 착한가격업소도 소개돼 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729-2571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디지털 지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그려요

종이 지적도가 토지의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현황을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한다. 우리시는 올해 중원구 성남동 모란지구 및 갈현동 아랫말지구의 지적불합치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구를 관장하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측량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청 토지정보과 031-729-4531~2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031-729-6121~4

‘민원24시’ 언제 어디서나 모든 민원 OK

대한민국 대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www.minwon.go.kr)는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3천여 종), 발급(1,200여 종), 열람할 수 있다.

또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통해 이사·장애인복지·자동차·다문화가족 등 다수의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125종 민원은 온라인 신청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감면된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1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해요

경기도 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시 등 경기도 내 21개 시의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하며 매입가격과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 매입한다. 매입가격 한도는 호당 기준 평균매입가격 1억5천만 원 이하다. 부동산 소유자나 부동산중개업자(중개접수)는 9월 30일까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매입임대팀(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희망 나눔 | 사랑방문화클럽의 시민 작가단

문화 프로젝트 북을 만든다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생활양식과 삶의 방식 등 총체적 유·무형의 자산, 문화. 그래서 문화는 고여 있지 않고 흐른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사랑방문화클럽의 전반적 활동을 직접 보고 느끼고 글과 사진으로 남겨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회의 중인 시민작가단. 왼쪽부터 조진희, 이명예, 이은영, 김형미, 고 웅 씨

사랑방 문화클럽의 '시민 작가단(류혜연, 김형미, 조진희, 이명예, 최준민, 조여일)'이다. 시민 작가단은 성남문화재단 프로젝트 북 제작사업 담당자 고 웅 씨와 이은영 작가를 주축으로 2013년 결성됐고 지난해 6번째 프로젝트 북인 <탄천 아리랑>을 제작했다.

“시민 작가들의 모임은 프로작가들의 작품이 아닌,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과 일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예술 참여 범위를 넓히고 현장 참여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향유에 그 목적이 있다”는 고 웅 씨는 “책을 제작함으로써 작가들의 전문적 역량 개발과 자체 기획력을 강화하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활성화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도 기대한다”고 한다.

시각이 공연단과 관객들의 측면이라는 조진희 작가는 “사랑방문화클럽인은 ‘예술은 이런 것이다’라며 이론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활동

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한다”며 “실제 참여하고 행동하는 예술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욕구 충족이 될까, 그러기 위해선 정책적인 지원과 그 후 자생력을 갖고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정서적 공동체로 협업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은 SNS와 온라인 모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눈다. 이은영 작가는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가까워서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무척 흥미롭고, 작가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 주제로 모아지는 힘이 대단해 기대된다”고 한다.

또한 “소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작가들의 역량과 열정도 높고 현재 중반으로 접어든 중요한 시점에서 전체적인 일의 순조로운 진행과 더불어 재미있고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고 한다.

사랑방문화클럽 한마당(4~11월), 제7회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10월 8~13일), 품앗이와 문화통화

등 클럽인의 전반적 내용을 담아 낼 시민 작가들.

발로 뛰어야 하는 일이라며 시민들과 가까워서 하는 야외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고 없이 비가 오거나 무대 앞에서 강아지의 울음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등 주변 상황으로 인해 공연 내용이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무척 안타깝다는 김형미 작가는 “모든 공연은 무형으로 순간이 지나면 형태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진과 글로나마 그 감동을 유형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프로젝트 북은 우리들의 일기장, 일 년 동안의 결과물, 생생한 역사라 제작된 책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언저리가 따뜻해진다”고 한다.

체계성이 없고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문화는 소멸한다. 생생한 기록으로 세대 간의 지식 전달과 공감대를 만들어 낼 시민 작가들의 일곱 번째 문화 프로젝트 북, 조화로운 그들의 따뜻한 숨결을 기대해 본다.

조민자 기자 dudldk@hanmail.net

칭찬해요 | 성남시새마을회 ‘사랑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이불 빨래 해 드립니다”



세탁물 수거·세탁·건조 후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

“오늘 밤엔 잘 세탁된 뽕송뽕송한 이불을 덮고 자게 돼 정말 좋네요. 잠자리에서 좋은 꿈을 꿀 것 같고, 하하하!”

이영수(75·수진1동) 어르신은 세탁된 이불을 받아 들고는 그 고마움을 얼굴 가득 함박웃음으로 표현한다. 성남시새마을회는 지난 6월부터 ‘사랑의

이동세탁차’를 운행하며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성남시새마을부녀회 유이재 회장은 “이동세탁차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빨래를 제때 못해서 각종 세균에 노출되는 위생문제도 해결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빨래를 해주면서 어르신들과의 인간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이동세탁 차량에는 세탁에서 건조까지 가능한 17kg 용량의 드럼세탁기 3대가 탑재돼,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장애인들을 찾아가 세탁서비스를 펼친다. 동 단위 순회일정표에 따라 월~금요일까지 주5일 운행하며, 해당 동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오전 9시부터 수혜자 가정을 방문,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후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눅눅해진 이불 빨랫감을 두고도 거동이 불편해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세탁해 주니 정말 고맙다”며 수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땀 흘려 봉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성남시새마을회는 세탁차량 운행 사업을 통해 지난 6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25개 동 취약 계층 350가구를 대상으로 7,500kg의 세탁물을 세탁해 줬다. 새마을회 이석영 사업과장은 “이동세탁에 대한 수혜자들과 주위의 호응도가 무척 높아 9월부터는 소년소녀가장 등 수혜자와 지역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위생관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새마을회 031-708-6900~1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아름다운 동행 |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이수자

‘사랑가, 한량무, 봉산탈춤’... 향토무용 발전과 함께한 40여 년

김종해 성남무용단장

한국무용협회 성남시지부장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이수자 및 보존회 부회장인 김종해(62·하대원동) 성남무용단 단장은 1982년 ‘난무회(蘭舞會)’를 창단, 초대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개칭된 ‘성남무용단’ 단장으로 향토무용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시골에서 4대 독자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광주로 이사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산실력이 남달랐던 선생은 광주동성중·광주상고를 주산 5단의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1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극을 하겠다고 기차표 한 장 들고 무작정 상경했다. 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남자가 무슨 무용이냐”고 더 반대가 심했지만 한번 뜻을 세우니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다. 1974년을 서울에서 보내고 1975년 누님 덕으로 온 때부터 성남에 뿌리내려 살게 됐다.

선생이 하고 싶었던 것은 연극이었기 때문에 연극에 필요한 신체훈련을 위해 무용·창·발레 등을 배웠다. 연극에 가미하려 한국무용을 했던 것이 선생을 무용인으로 살게 한 운명적인 계기가 됐다.

1979년 2월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한 그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시립무용단에 입단해 3년 동안 활동을 한다. 1981년 10월 결혼을 하고 82년 국립무용단에 입단해 13년을 활동하게 된다.

故 김선봉, 故 양소운, 故 윤 옥, 김기수 선생으로



부터 봉산탈춤을 사사했고 8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이수자가 됐다. 1993년 경기도립무용단 단무장으로 3년을 재직했고, 1976년부터 1994년 정금란 선생이 타계하기까지 그분에게서 한국무용을 사사했다.

1997년부터 경기문화재단 예술부 전문위원(예술탐장)으로 10년을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009년 2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봉산탈춤의 현대적 전승방안 연구> 논문으로 무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70여 개국에 40여 회 해외공연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며 국가 홍보사절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립무용단 시절 ‘도미부인’ 공연 후 2년 만에 모범단원상을 받았고, 1984년 LA올림픽 때 공연작품이 됐다. 제3회 전국무용제에서 ‘태(胎)’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에 이어, 민족성·자주성을 강조하는 작품 ‘외로운 섬 독도이야기’로 안무상·미술상, 제10



회 성남예술대상을 수상하는 등 빛나는 활동경력을 갖고 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성불립(無誠不立)의 정신을 예술인으로서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온 선생은 성남문화원에서 한국민속춤(춤춤 무용단) 강사로 오늘도 후진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용을 전공한 단원들로 구성된 한국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두루 공연하는 전문 프로무용단의 수장으로서 차세대 젊은 안무가 양성을 위해 제16회 성남창작무용제를 9월 2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연다.

성남시민의 많은 호응을 기대한다며, 예술의 불모지였던 이곳 성남에 무용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다 타계한 정금란 선생의 맥을 잇기 위해 11월에 있을 ‘제12회 정금란 무용제’가 전국적 무용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착한도시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착한 운전’에 인센티브 준다



성남의 교통문화, 업그레이드하자! 나부터 ‘착한 운전!’ 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9월 4일 모란민속5일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 운전 마일

리지 서약 캠페인’을 실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준다. 벌점누적, 면허정지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면 누적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뜻하지 않게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

기에 큰 부담 없이 착한 운전에도 동참할 수 있다.

모란시장을 방문했다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한 박성호(50·성남동) 씨는 “규제나 단속 위주가 아닌, 혜택을 부여하는 운전 마일리지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더 많이 홍보돼 시민들 모두 ‘착한 운전’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착한운전 습관과 함께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달려보자.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

**건강
100세**


당신의 머리카락은 편안한가요

일교차가 커지는 지금, 당신의 머리카락은 편안
한가요?

일 년 중 머리카락이 가장 잘 자라는 시기는 언제
일까요? 여름입니다. 그럼 일 년 중 머리카락이 가
장 많이 빠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가을입
니다.

자연의 변화에 사람의 몸 또한 순응하고 그에 따
른 변화가 생기게 마련으로 가을이 되면서 지친 여
름 동안 떨어졌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몸의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이
가을 탈모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
에 머리를 감거나 손질할 때 평소보다 더 빠지는 듯
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
할 일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빠지는 머리
카락이 하루에 70개 이하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름철 과도한 체력소모나 두피를 청결하
게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의 이유로 모발의 탈락이
급격히 많아져 하루 100개 이상이거나 모발이 가늘
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면 초기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기본은 두피청결입니다.

가능한 외출 후 취침 전에 샴푸로 거품을 낸 후 구
석구석 마사지하듯 문지르며 따뜻한 물로 헹궈내고
찬물로 마무리하며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고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입니다.

둘째, 올바른 영양섭취입니다.

머리카락은 한의학에서 혈여(血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의 여분이란 뜻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영양섭취, 특히 머리카
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가 매우 중요

합니다. 만약 여름철 과도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섭취입니다.

혈여(血餘)라는 표현처럼 충분한 수분은 충분한
혈액량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게 되며 건조한 가
을 날씨에 피부·두피가 건조해져서 탈모의 원인이
되는 각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 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세포 성장이 가장 왕성한 자시(子時
23:00~01:00)에 숙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
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은 두피근육의 긴장을 유
발하고 모근을 약화시키고 모발의 발육을 저하해 탈
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은 심신(心身)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탈모가 가족력으로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환자나 윗머리 탈모, 남
성 조기탈모 발생 환자의 경우는 가족력과 크게 상
관없이 발생합니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탈모의 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상담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통해 탈모 초기에서
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문의 : 참조은한의원 031-712-7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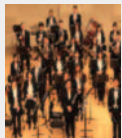
정희상 한의학 박사

전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건강교실
제8회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개최

• 기간 : 10.18(금)~10.20(일) 3일간

구분	성남시민 정신건강축제	당뇨건강걷기대회	성남시민 건강한마당
일시	10.18(금)	10.19(토)	10.20(일)
대상	일반시민	당뇨인 및 가족	일반시민
장소	성남시청(온누리실)	분당 중앙공원	남한산성
	- 초청강연 (정신전문 : 표진인) - 정신건강부스 운영 - 정신장애 환경 체험 - 치매예방 체험 - 선별검사(우울, 스트레스) - 가상음주체험 - 포스터 및 작품전시 - 오케스트라공연 및 카페 운영	- 등록접수 - 운동 전·후 혈당측정 - 당뇨건강걷기대회 (4km, 1시간 소요) - 고지혈증 검사	- 건강체험관 운영 (종합병원, 보건의료단체 참여) - 시민걷기대회 -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사회 염용수, 초청가수 주현미 등 공연)



보건소 건강증진팀 | 수정구 031-729-3852, 중원구 031-729-3913

분당구 031-729-3973, 031-729-4332(정신건강팀)

2013 성남시 여성 생활체육 강좌

• 기간 : 10.1(화)~11.30(토) 2개월간

종목	시간	대상	접수
호신술	화·수 10:00~12:00	시 관내 여성	9.16~9.30
음악줄넘기	월·수 10:00~12:00		선착순 인터넷(www.lifesports.or.kr) 접수

성남시생활체육회 031-758-8690~2

보바스기념병원 뇌인지건강센터 개소 기념 건강강좌

• 일시 : 10.8(화) 15:00~17:00

• 장소 : 보바스기념병원 보바스홀(로비층)

• 대상 :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 내용 : 치매란(전 대한치매학회장 김범생), 행복을 전하는 웃음치료(웃음치료사 유영숙), 치매의 진단과 치료(뇌인지건강센터장 나해리), 행복한 영희 씨(치매환자 보호자 김영희), 치매와 노인우울증 예방 식단(영양사 윤화영) 등

보바스기념병원 신경심리실 031-786-3017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하세요!

가을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등산 등으로 숲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다.

숲은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숲에는 사람에게 유해한 것도 있는데, 특히 불청객인 쥐와 진드기에 의해 감염해 발생하는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고 눕거나 잠 자지 말 것

• 휴식 및 새참 먹을 땀 뚝자리를 펴고 앉고 사용한 뚝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릴 것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 보지 말 것

•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 착용,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 밤파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해 진드기를 제거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수정구 031-729-3863, 중원구 031-729-3922, 분당구 031-729-3983

재테크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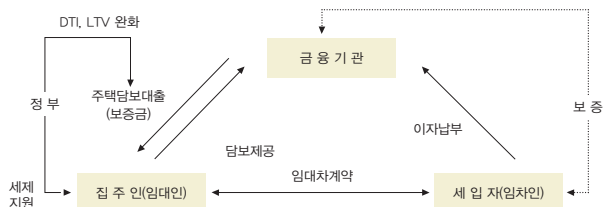
4.1 부동산 대책 네 번째, 렌트푸어 지원방안

남기일 포도재무설계 지점장 moneyplan@podofp.com
010-8974-4177

치솟는 전세 값 부담으로 인해, 서민 주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으로,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 자금을 담보 대출화해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의 확대가 그 실행방안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목돈 안 드는 전세 : ① 집 주인 담보대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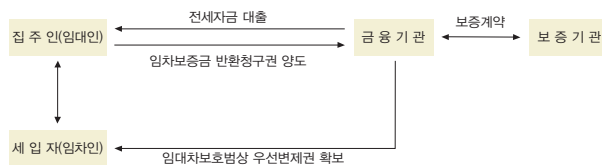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이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인해, 세입자에게는 낮은 금융비용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주인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담보대출규모에 비례해 재산세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가 납입한 이자에 대해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5천만 원, 지방 3천만 원, 임차인

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전세 보증금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목돈 안 드는 전세 : ②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담보를 제공해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의 확대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조정해 목돈 마련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현 소득요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를 현 8천만 원에서 수도권만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대출 금리도 현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금 추가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렌트푸어 지원책의 핵심은 세입자에게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해 전세금 부담을 덜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매매수요보다 전세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지원 방식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소비자 Q&A

공연관람권 취소 시 전액 환불 조건

Q 며칠 전 소셜커머스에서 7만8천 원짜리 공연관람권을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이틀 앞두고 좌석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특정인에게만 3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같은 공연을 보면서 3만 원을 더 낸다는 게 부당한 것 같아 뒤늦게 할인권을 요구했지만 이미 예매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A 공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공연 취소나 관람일 연기,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관람시간 표기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주최 측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주최 측 과실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공연관람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공연이 2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돼 공연료의 30%를 공제한 나머지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 생태도시 성남 ≡

가을 탄천의 원앙 이야기



요즘 탄천 주변이나 판교 운중천에서 올 여름 태어난 어린 원앙들과 털갈이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어른 원앙 모습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원앙은 오리과에 속하는 물새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 327호다. 번식기의 원앙은 암수의 깃털차이가 커 중국 고대에서는 서로 다른 새로 인식해 수컷을 ‘원’, 암컷을 ‘앙’이라 이름을 따로 붙였다.

진나라 장화가 지은 <금경>이란 책에서 원앙은 짝을 지어 사는 새인데 날

아오를 때 수컷은 왼쪽에서, 암컷은 오른쪽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 날개를 맞대어 날고 만일 불행히 짝을 잃게 되면 남은 한 마리는 결코 따로 다른 새 짝을 찾지 않는다고 묘사됐다.

원앙은 부부의 정다움을 상징했고 그래서 원앙깃털로 이불을 만들거나 베개에 원앙을 수놓았다.

원앙은 그림에도 자주 등장했는데 이때는 귀한 아들을 뜻했다. 사이좋은 부부에게서 똑똑한 자식이 나온다 해서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보통

동양의 그림에서 연못에 화려하게 핀 연꽃과 원앙이 같이 그려진 것은 ‘연생귀자도’라 해 ‘대를 이어 귀한 자식을 낳으라’는 뜻이다.

고려시대 ‘청자 원앙 뚜껑 향로’는 향로 뚜껑에 원앙새 수컷을 조각해 연기가 입으로 나오도록 만들었다. 이런 향로는 부부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가정의 행복과 평화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 원앙은 한 쌍이 함께 다니다가 암컷이 알을 낳아 품으면 수컷은 바로 다른 암컷에게 가버리므로 원앙이 새 중에서 가장 바람둥이라고 한다. 수컷 원앙은 매우 화려해서 적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원앙에게 느껴지는 묘한 배신감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고 원앙에 대한 무지일 수도 있지만 조상들은 원앙이 알을 낳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사랑하는 과정에 주목

해 금실 좋은 부부의 상징으로 원앙을 꼽은 것이리라.

예로부터 우리는 원앙과 같은 금실을 바라는 마음에서 신혼부부에게 나무로 만든 원앙 한 쌍을 주곤 했는데 이 목각 원앙인형은 원앙의 머리가 좌우로 돌아간다고 한다. 상대방으로 인해 기분이 상한 날이면 서로 바라보고 있는 원앙의 머리를 반대로 돌려 상대방이 이를 눈치 챌 수 있도록 해서 부부간의 대화와 화해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또 여자는 하고 싶은 말을 될 수 있으면 아껴서 하라는 의미로 암컷 원앙의 주둥이는 항상 실로 묶여 있다고 한다.

이제 털갈이를 마치고 나면 원앙 수컷은 화려한 깃털로 옷을 갈아입을 것이다. 비록 일편단심을 보이지 않아 아쉽지만 원앙 목각인형 속에 경솔한 말을 삼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야 함을 담아 두었던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며 원앙을 바라봐도 좋을 듯하다.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Story

바나나우유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

임광복 분당구 수내동

전철역 맞이방에 가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잠시 앉아 있었다. 맞이방은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내리고 있어 무척 혼잡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차 시간이 다 되었는지 자리를 떴고 이내 그 자리로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자마자 할아버지 오른 쪽에 앉아 있던 젊은 주부가 마치 불에 덴 듯한 몸놀림으로 후다닥 자리를 뜨는 것이 보였다. 곧 바로 할아버지의 왼쪽에 앉아 있던 젊은 남자마저 자리를 비우고 사라졌다.

두 자리가 빈 채 아무도 그 옆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흘렀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혼잡한 맞이방에서 두 개의 자리가 비어 있는 채 10분간 아무도 앉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10분쯤 흘렀을까. 세 살 정

도 된 아이가 할아버지 옆에 와서 앉았고 그 바로 앞에 젊은 주부가 서 있었다. 아이의 엄마였다.

할아버지는 그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리며 귀엽다고 엉덩이를 두드렸다. 순간 나는 아이 엄마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뒤늦게 할아버지의 행색을 알아보고는 아이를 낚아채듯 데리고 사라질 것이라 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할아버지께 인사해야지” 하고 말했다. 아이가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그 엄마는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어 그 할아버지께 건네며 “이거, 바나나 우유예요. 아기 주려고 산 건데 아직 안 뜯은 거예요. 하나 드세요”라며 드리는 게 아닌가. 별 거 아닌 듯하지만 그냥 감동이 었다. 그 엄마의 성품이 천사 같았다.

육아 궁금해요

20개월 아이와 스마트폰 실랑이해요

Q. 우리 아이는 이제 20개월인데 스마트폰 때문에 매일 저와 실랑이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A. 요즈음은 어디를 가든지 유모차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를 혼내거나 아이와 실랑이를 하는 가정도 쉽게 볼 수 있죠. 스마트폰, PC, TV 등은 우리의 뇌를 쉽게 중독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아이의 언어발달과 운동능력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만 2세까지는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노출됐고 미디어 매체

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아이와 함께하세요. 유아들의 경우 신체를 움직이거나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놀이가 좋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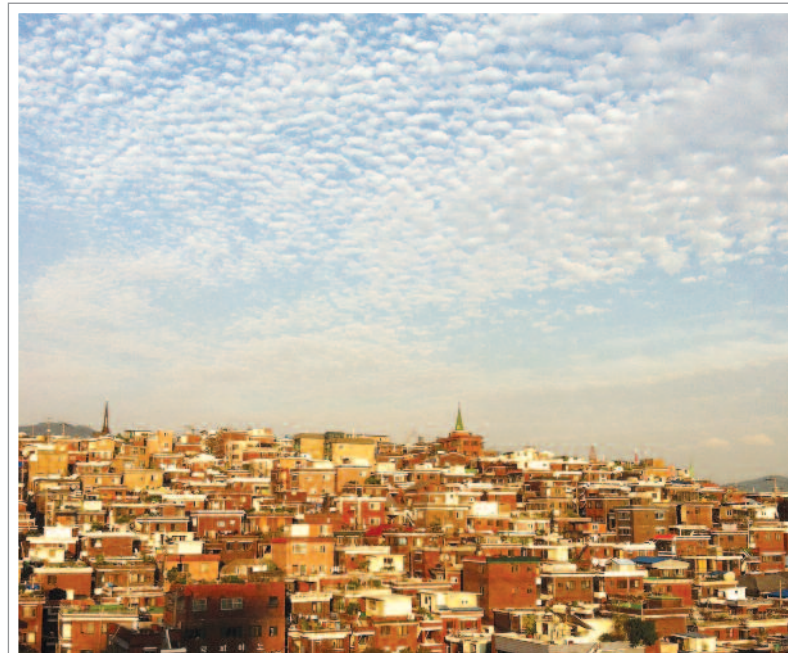
전화나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꼭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 외에 TV나 동영상 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보면서 아이는 못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미디어 기기에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정은 실장 |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 발달클리닉



이달의 독자 포포



유럽... 성남 태평동! - 김선미 | 수정구 태평동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다. 마치 유럽에 온 듯 하늘과 어울리는 각양각색의 집들. 그대로 잘 보존되기 바란다, 성남 태평동!



재미있는 계단 - 이정숙 | 중원구 하대원동

중원구 상대원 고갯길을 가다가 재미있는 계단을 발견했다. 일명 '다이어트 계단'이라는데. 힘든 계단 길도 칼로리 소비표를 보면서 걷다 보면 신나는 곳이 된다(중원구 박석로 25번길 43-1).



남한산성의 빛 내림 - 한광운 | 수정구 단대동

비가 그치고 난 후 남한산성 남문에 올랐을 때 마침 하늘에서 구름사이로 빛 내림이 있었다. 그 날은 우울한 날이었는데 빛 내림 풍경에 취해 큰 위안을 받았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찾아오지만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면 행복은 자연스레 찾아온다. 성남시민들 곁에 남한산성이 있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다.

독자마당 안내

독자 수필과 추천도서(원고지 5매 내외),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니다. 2013년 10월 7일(월)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031-729-2075~6 이메일 : sn997@korea.kr

통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성남을 추억하다(8) 농사와 놀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때를 아시나요?



‘권농의 날’ 기념 모내기 1960년대 농악 연희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현득, 김종목, 김근배, 장양천, 이종훈, 고유형목(자료제공: 장계석)

권농일(勸農日)은 농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던 때 농사를 권장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1996년 권농일을 폐지하기 전까지 정부가 주관한 공식기념일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지역도 1970년 이전에는 거의 농지이거나 산이었기에 농사가 업인 사람들이 살았다.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인 줄만 알고 살던 시절, “본시가지로 학교를 가면 유학 왔다고 놀렸을 정도로 이매동은 촌이었다”는 한 시민은 “부모님이 이매동(성남시농업기술센터 근처)에서 복숭아과수원을 하셨는데 이주 초기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이주민들이 애써 가꾼 복숭아를 밤에 자루를 들고 와 몰래 따 가버려서 가슴 아팠다”며 농부의 안타까웠던 때를 말한다.

남다른 소리꾼의 끼를 타고 났다는 50대 남자 분은 “농부자식이 소리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어른들 눈을 피해 새물이 한다는 핑계로 논으

로 나가 목청껏 소리 연습을 하곤 했어. 닭이 알을 낳으면 목을 보호하기 위해 계란을 감추고 시치미를 떼었지.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알도 낳지 못하면서 낮에 우는 닭은 재수 없으니 그 놈의 닭 잡아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셨다”며 웃는다.

논밭은 이제 개발의 더께에 눌러 시민들의 자전거길, 산책로가 됐으며 농토를 비옥하게 했던 탄전은 빌딩 사이로 흐른다. 옛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고 새로운 풍경이 그림의 한 자락에 앉았다.

그 시절, 농부는 농사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 두레 단위로 놀이를 즐겼다. 모내기 때나 추수를 마친 뒤 공동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고 농악에 맞춰 여러 가지 연희를 곁들여 뛰고 놀면서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그 놀이와 노래가 우리 지역의 오리역 주변인 오리뜰 지역에서도 1960년대까지 전해져 왔다. 그 후 도시화가 진행되자 두레 농악을 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농악도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농악 전승자인 강승호 (사)한국농악보존협회 성

남지회장은 “물 좋은 탄천 주변으로 먹을거리 따라 오리가 날아와서 ‘오리뜰’이라 했다. 그 들녘 구미리(안말, 벌말, 골안, 념말...)에서 놀던 풍물을 ‘오리뜰 농악’이라 했고, 힘을 덜기 위해 부르던 농요를 ‘오리뜰 들노래’라 했다.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한 ‘전통예술훈원사업’으로 선정(2007년 농악, 2008년 들노래)돼 복원하게 됐다”고 한다.

그에게 재밌는 노랫가락 하나를 부탁했다.

“물이 출렁 수답이요~ 물이 말라 건답이로세~ ~억대우 같은 소로다...” 선창을 하면 “하나로 구나~ 둘. 둘이로다~ 서이...” 하며 떼기고 받는 가락이 구성지다.

그에게 청했던 노래는 컷가에 울리는데 나오는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단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남았기 때문이다.

※ 9월 8일 2013년 임방울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오리뜰 농악’이 준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시청에서 놀다(7)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소비자 주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 문제도 날로 커지는 요즘 소비자 불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청사 서관 1층 출입구 좌편에 자리한 성남시소

비자정보센터는 각종 물품 구입과 계약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로 분쟁과 불만을 상담하면 전문상담원이 해결책을 찾아준다.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담이 이뤄진다. 생활주변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이삿짐센터, 사고세탁물 등 제품의 하자에 따른 피해상담 후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내용을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과 환불, 시정, 해약 권고 조치한다.

소비자 피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소비자 피해 주 대상인 청소년·노인·주부·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과 대처요령 등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시청에서는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체 소

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 물가정보, 생활정보, 이용자 의견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 종합정보도 제공한다.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과 성남여자기독청년회(성남YWCA)의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 상담하고 있다.

추석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쇼핑몰 사기판매, 택배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과 같은 피해가 있었다면 이곳을 방문해보자.

• 운영시간 : 월~금 10:00~17:00(토·일 휴무)

• 상담방법 : 방문상담 소비자정보센터(시청사 서관 1층 출입구 좌편), 전화상담 031-729-2598, 팩스 031-729-2599

• 전국망 상담 : 국번없이 1372

지역경제과 소비자지원팀 031-729-2802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